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7호 [루게 제 24750호] 주제 103(2014)년 12월 3일(수요일)

당의 경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비엔티안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쑤 말 리 싸 이 나 쏜 동 지

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창건 39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라오스인민혁명당과 라오스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공화국창건후 지난 39년간 라오스인민은 라오스인민혁명당의 영도밑에 나라의 실정에 맞는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면서 애국, 자주독립,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고있으며 형제적라오스인민이 사회주의리념을 고수하고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가져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선대수령들의 숭고한 뜻과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조선과 라오스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당과 국가를 영도하는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 정 은

주제 103(2014)년 12월 2일 평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1월 23일과 25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타이 신문 《방코크 포스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물을 모시고 《조선 평도대 미식산인들의 찬인성을 보여주는 박물관 현지지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조선의 김정은평도대자께서 조선전정시기 미군의 잔인한 만행을 보여 주는 박물관을 현지지도하였다.

김정은평도대자께서는 천만군민을 반대결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해 신천박물관을 찾아왔다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미군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후퇴시기 신천군에서 만도 3만 5 000여명을 무참히 학살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미제가 신천땅에서 감행한 대학살행위를 미제침략자들이 야말로 인간살육을 도락으로 삼는 식인종이며 살인마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하시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조선의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전정시기 미군의 만행자료를 전시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반미교양을 강화할것을 강조하시고

박물관을 새로 다시 건설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었다고 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퐁신, 인메르락스통신, 신문 《보스잡스키 포스트레드》와 《브즈발라드》, 인터넷통신들인 로스탈트, 렌다, 루, 우르도, 루, 미국의 UPI통신이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캄보디아신문 《꼭 손때피엠편》과 미국의 인터넷홈페이지 《야후》는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인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72대연함부대와 제630대연함부대관하 부대들의 연합협동훈련을 조직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그리움의 대해 뜨겁게 굽이치는 수령영생의 언덕

만수대언덕에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연 2 000여만명 경모의 정 표시, 3만 7 000여상의 꽃바구니 진정

인민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들의 곁을 떠나신 때로부터 3년 세월이 흘렀다.

주제 101(2012)년 4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만수대언덕에 대한수령님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졌으로써 피눈물의 12월의 날에 가슴에 맺었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소망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날이 갈수록 더욱 사무쳐오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충정의 맹세를 안고 수령영생의 빛날 찬란한 만수대언덕을 찾고 또 찾았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주제 101(2012)년 4월부터 지금까지 3년 3개월간 연 2 000여만명의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이 만수대언덕에 올라 뜨거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으며 3만 7 000여상의 영생축원의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이른 새벽에도 깊은 밤에도, 눈오는 겨울에도 비오는 여름에도 시간과 계절에 가림없이 만수대언덕으로 뜨겁게 굽이치는 그리움의 대하는 위대한 대한수령님을 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인 영도아래 이 땅위에 기어오르는 세상이 떠나우려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가 과연 어떤것인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숭고한 도덕의의이다.》

만수대언덕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이 높이 모셔진 때로부터 우리 천만군민은 한평생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면서 사회주의조국을 지켜주시고 인민의 행복을 끝없이 꽃피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충정의 맹세를 안고 수령영생의 언덕에 세상에 없는 숭고한 충정의 화폭을 펼치었다.

건설의 대변영기를 펼치며 사회주의명문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비약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 뜻깊은 올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만수대언덕에 올라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앞에 영생축원의 꽃바구니와 꽃잎들을 진정하고 충정의 맹세를 다지었다.

올해 첫날부터 시작하여 만수대언덕으로는 매일같이 동상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하는 각계층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을 비롯하여 평정들과 기념일들, 중요계기들마다 간결한 그리움과 자랑찬 승전소식을 안고 찾는 사람들의 물결이 그칠새 없었다.

특히 2월에는 전국농업부문본조장대회 참가자들과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이, 3월에는 겨울에도 비오는 여름에도 시간과 계절에 가림없이 만수대언덕으로 뜨겁게 굽이치는 그리움의 대하는 위대한 대한수령님을 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인 영도아래 이 땅위에 기어오르는 세상이 떠나우려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가 과연 어떤것인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숭고한 도덕의의이다.》

만수대언덕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을 비롯하여 국제경기들마다

에서 공화국기를 자랑스럽게 휘날린 수많은 체육인들이 만수대언덕에 올라 위대한 대한수령님께 자랑찬 승리의 보기를 삼가 드리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더 많은 금메달로 받들어갈 불같은 맹세를 다지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3돐을 앞둔 지금 만수대언덕을 찾는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우리처럼 오래동안 입으로 읊조리며 야전출발로써 소망하는 추위를 보다는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초강대강화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던 불세출의 선군명장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눈앞에 어려와 솟구치는 격정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서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 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애국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과 인민을 위한 한평생 숭고한 애국정신을 높이 기리고있다.

만수대언덕에 오른 사람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여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아래 이 땅위에 완성하고야말 불라는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만수대언덕을 찾는 외국의 벗들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경건히 우러르며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위업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되새기고있다. 그들은 위대한 대한수령님들과 똑같은 또 한분분의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며 더욱 번영할 선군조선의 휘황한 앞날에 대해 격조높이 이야기하고있다.

지난 8월 만수대동상을 찾았던 프랑스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인 만영문에 《만수대언덕에 모셔진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영도자의 동상을

찾을 때마다 나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곳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주석님과 이들을 계승하신 장군님에 대한 조선인민의 흠모와 존경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라고 썼다.

얼마전에 이곳을 찾은 외국의 한 인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독립과 진보, 행복으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께 깊은 존경심을 표하는바이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심장속에 모시고 사는 조선인민들의 훌륭한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라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절세위인에 대한 절절한 호모성을 안고 만수대언덕에 오른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은 수없이 많다.

지금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현히 더 잘 모시려는 우리 인민들의 열화같은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떠받들려 수령영생의 언덕으로 더욱 빛나고있다.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동상관리사업에 필요한 물자들을 안고 찾아오는 기관들과 가정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저녁으로 동상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날을 따라 늘고 있다.

만수대언덕으로의 앞으로도 3년이 아니라 30년, 300년이 흐르면 천만년 세월이 흐른대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이 우리 군대와 인민들 그리고 인류의 태양을 못 잊어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그리움의 대하가 더욱더 세차게 굽이쳐흐를것이다.

우리 천만군민과 진보적인류의 심장을 울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언제나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만영문 《만수대언덕에 모셔진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영도자의 동상을

본사기자 김 명 훈

집단적 혁신의 불길높이 힘차게 전진

북방의 끝지의 대우색금속 광물생산기지인 걸력파업연합기업소에서 얼마전 13수직갱대보수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운영을 시작하였다.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광부들은 조선속도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열의를 안고 한결같이 펼쳐나 8개월이 걸려야 한다던 어렵고 방대한 대보수공사를 낙달동안에 해제끼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심부지구의 광물광산에서 캐내는 광석을 끌어올리는 데 이바지하는 13수직갱대보수공사가 끝났으며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와 단천지구공업총국 당위원회는 지도도에 연합기업소의 일꾼들은

세계 혁신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내달리고 있는 김정은평양방직공장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우리 식의 현대화실현에서 큰 역할을 내디디고있다. 최근 여러차례의 전국적인 과학기술축전과 프로그램전시회들에 출품한 공작기술품, 로동자들의 과학기술발명품과 기술혁신인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실들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평도대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시었다.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연구 도입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 그것도 주체적립장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으로 됩니다.》

13수직갱대보수 결속, 운영 시작

경덕 광업 연합 기업소에서

연합기업소적인 광물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심부지구의 13수직갱대보수공사를 통해 크게 작전하고 힘있게 내밀었다.

연합기업소의 일꾼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력으로 풀어나가면서 공사를 다그치기 위한 작전을 통해 크게 세우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일꾼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대대적대보수공사를 착수하고 최후의 구호를 심장깊이 새기고 낮에 밤을 이어가며 치열한 돌격전을 벌이며 대보수공사를 하루빨리 끝내기 위한 투쟁으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일꾼들은 공사지휘부를 내오고 설계와 로력조직, 설비, 자재보장을 짜고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연합기업소아래 설비조립직장, 광물광산 학원장, 승리갱에서 대보수전투에 동원된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공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한결같이 펼쳐나 혁신적인 투쟁을 벌였다. 수직갱도 수백m나 심부지구로 뻗어있고 석수가 쉬임 없이 떨어지는 13수직갱에서 이미 있던 낡은 횡단보와 걸잡이레우, 걸잡이대 등 장비레우를 설치하기 위한 천공정확관측이기를 창안제작하여 레우설치작업을 20일이나 앞당겼다. 석수가 떨어져 용접작업에 지장을 받게 되자 로동자, 기술자들은 석수방지대책을 세우고 용접전투를 벌였다. 4개 교대의 일꾼들은 순환작업으로 공작간, 교대간 작업조직을 면밀하게 짜고있고 사회주의정신을 치열하게 벌려 매일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공사를 뒤받침해주기 위한 보장부원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투쟁열의와 기세도 대단하였다.

공무분공장의 가공공장, 제판직장, 소재직장의 일꾼들과

공공참모부일꾼들이 현대화실현을 위한 책략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조직사업으로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공장의 많은 로동자, 기술자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서 배우면서 현업에서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습득하고있다. 공장에서는 기술정보실을 거점으로 기술자, 기능공을 거쳐 소면공정에서의 승진단계까지 직접 활용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인재들을 길러내어가고 있다. 공장에서 기술자, 기능공을 비롯하여 청년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있다. 공장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수평양강공업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장에서 인건전직장의 수압기기를 우리 식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현대화를 우리 실정에 맞게

김정숙 평양방직공장에서

공공참모부일꾼들이 현대화실현을 위한 책략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조직사업으로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공장의 많은 로동자, 기술자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서 배우면서 현업에서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습득하고있다. 공장에서는 기술정보실을 거점으로 기술자, 기능공을 거쳐 소면공정에서의 승진단계까지 직접 활용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인재들을 길러내어가고 있다. 공장에서 기술자, 기능공을 비롯하여 청년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있다. 공장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수평양강공업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장에서 인건전직장의 수압기기를 우리 식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공공참모부일꾼들이 현대화실현을 위한 책략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조직사업으로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공장의 많은 로동자, 기술자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서 배우면서 현업에서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습득하고있다. 공장에서는 기술정보실을 거점으로 기술자, 기능공을 거쳐 소면공정에서의 승진단계까지 직접 활용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인재들을 길러내어가고 있다. 공장에서 기술자, 기능공을 비롯하여 청년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있다. 공장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수평양강공업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장에서 인건전직장의 수압기기를 우리 식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공공참모부일꾼들이 현대화실현을 위한 책략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조직사업으로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공장의 많은 로동자, 기술자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서 배우면서 현업에서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습득하고있다. 공장에서는 기술정보실을 거점으로 기술자, 기능공을 거쳐 소면공정에서의 승진단계까지 직접 활용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인재들을 길러내어가고 있다. 공장에서 기술자, 기능공을 비롯하여 청년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있다. 공장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수평양강공업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장에서 인건전직장의 수압기기를 우리 식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신천박물관 중업원들의 경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신천박물관 중업원들의 경기모임이 2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조유일 도당위원회 비서, 관제부원 일꾼들, 박물관중업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판강박영숙의 보고에 이어 판강 김덕성, 강사들인 리금주, 민옥성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에 심장에 새기고 혁명정신, 계급정신을 굳건히 수호하고 천만군민에게 투철한 반제반미계급의식과 주체관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기모임의 전초선을 지켜보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명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미제수당양도와 계급적원수들의 야수성과 악랄성, 잔인성을 보여주는 축도이며 력사의 고찰자인 신천박물관을 품소 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천박물관의 본관과 사백여미터, 백여미터의 규모를 돌아보시면서 박물관을 계급교양거점의 본보기로 될수 있게 새로 다 건설하는 등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가는 데서 뜻깊은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에 심장에 새기고 혁명정신, 계급정신을 굳건히 수호하고 천만군민에게 투철한 반제반미계급의식과 주체관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기모임의 전초선을 지켜보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명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미제수당양도와 계급적원수들의 야수성과 악랄성, 잔인성을 보여주는 축도이며 력사의 고찰자인 신천박물관을 품소 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천박물관의 본관과 사백여미터, 백여미터의 규모를 돌아보시면서 박물관을 계급교양거점의 본보기로 될수 있게 새로 다 건설하는 등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고

집단적 혁신의 불길높이 힘차게 전진

북방의 끝지의 대우색금속 광물생산기지인 걸력파업연합기업소에서

연합기업소적인 광물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심부지구의 13수직갱대보수공사를 통해 크게 작전하고 힘있게 내밀었다.

연합기업소의 일꾼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력으로 풀어나가면서 공사를 다그치기 위한 작전을 통해 크게 세우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일꾼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대대적대보수공사를 착수하고 최후의 구호를 심장깊이 새기고 낮에 밤을 이어가며 치열한 돌격전을 벌이며 대보수공사를 하루빨리 끝내기 위한 투쟁으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일꾼들은 공사지휘부를 내오고 설계와 로력조직, 설비, 자재보장을 짜고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연합기업소아래 설비조립직장, 광물광산 학원장, 승리갱에서 대보수전투에 동원된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공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한결같이 펼쳐나 혁신적인 투쟁을 벌였다. 수직갱도 수백m나 심부지구로 뻗어있고 석수가 쉬임 없이 떨어지는 13수직갱에서 이미 있던 낡은 횡단보와 걸잡이레우, 걸잡이대 등 장비레우를 설치하기 위한 천공정확관측이기를 창안제작하여 레우설치작업을 20일이나 앞당겼다. 석수가 떨어져 용접작업에 지장을 받게 되자 로동자, 기술자들은 석수방지대책을 세우고 용접전투를 벌였다. 4개 교대의 일꾼들은 순환작업으로 공작간, 교대간 작업조직을 면밀하게 짜고있고 사회주의정신을 치열하게 벌려 매일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공사를 뒤받침해주기 위한 보장부원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투쟁열의와 기세도 대단하였다.

공무분공장의 가공공장, 제판직장, 소재직장의 일꾼들과

공공참모부일꾼들이 현대화실현을 위한 책략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조직사업으로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공장의 많은 로동자, 기술자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서 배우면서 현업에서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습득하고있다. 공장에서는 기술정보실을 거점으로 기술자, 기능공을 거쳐 소면공정에서의 승진단계까지 직접 활용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인재들을 길러내어가고 있다. 공장에서 기술자, 기능공을 비롯하여 청년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있다. 공장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수평양강공업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장에서 인건전직장의 수압기기를 우리 식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신천박물관 중업원들의 경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신천박물관 중업원들의 경기모임이 2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조유일 도당위원회 비서, 관제부원 일꾼들, 박물관중업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판강박영숙의 보고에 이어 판강 김덕성, 강사들인 리금주, 민옥성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에 심장에 새기고 혁명정신, 계급정신을 굳건히 수호하고 천만군민에게 투철한 반제반미계급의식과 주체관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기모임의 전초선을 지켜보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명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미제수당양도와 계급적원수들의 야수성과 악랄성, 잔인성을 보여주는 축도이며 력사의 고찰자인 신천박물관을 품소 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천박물관의 본관과 사백여미터, 백여미터의 규모를 돌아보시면서 박물관을 계급교양거점의 본보기로 될수 있게 새로 다 건설하는 등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가는 데서 뜻깊은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에 심장에 새기고 혁명정신, 계급정신을 굳건히 수호하고 천만군민에게 투철한 반제반미계급의식과 주체관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기모임의 전초선을 지켜보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명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미제수당양도와 계급적원수들의 야수성과 악랄성, 잔인성을 보여주는 축도이며 력사의 고찰자인 신천박물관을 품소 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천박물관의 본관과 사백여미터, 백여미터의 규모를 돌아보시면서 박물관을 계급교양거점의 본보기로 될수 있게 새로 다 건설하는 등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고



대상건설에 필요한 금속건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평양양금속건구공장에서- 본사기자 한 명 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 군사훈련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80(1991)년 4월
← 조선로동당창건 35돐과 당 제6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근로자들의 야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69(1980)년 10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남포제련소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52(1963)년 2월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61(1972)년 4월



인민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1(1982)년 8월



주체사상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1(1982)년 4월



만경대물놀이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4(1985)년 8월



서해감문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4(1985)년 9월



평원군 삼봉협동농장 일군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5(1986)년 11월



과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6(1987)년 11월



인류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8(1989)년 11월

위대한 생애, 불멸의 업적

부강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꽃피우신 희세의 위인

레이를 위하여,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을 관통하고 있는 인생관이었다.

수십년전과 별개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선을 누리에 떨칠지 불라는 맹세와 이 하늘아래 주체로 존엄하고 선군으로 위력있게 인민이 대대손손 복락을 누릴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실 의지를 안고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돌리시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

우리 인민이 강성국가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될 그날을 위하여, 조국의 존엄과 영광을 온 누리에 떨치시기 위하여 끝없는 헌신의 자욱을 새겨주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우리 어찌 천만년세월이 흐르든 잊을 수 있겠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나는 끝없이 변형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그 품속에서 더욱 보람있고 행복할 삶을 누릴 우리 인민의 모습을 그리며 그 어떤 난관도 달게 여기며 일하고있습니다. <노를 위한 노에 열매를 맺고 레일을 위한 노에 열매를 맺고, 이것이 나의 인생관이다.>」**

사람이 삶의 매 순간을 어떻게 사는지 하는것은 그가 지닌 인생관에 의해 규정된다.

오늘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부강번영할 조국의 레일을 위하여, 자기 세대만이 아니라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후대들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치는 인생관을 지닌 사람만이 조국과 인민을 애뜻할 수 있다.

장군님 혁명명도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안락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한바탕씩 갈고리 신장을 불태우시며 헌신의 로고를 바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강조국 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신것은 삶의 목표이고 보람이었습니다. 어느해 2월 17일이었습니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일을 맞으며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축하를 받고보시어께가 더 무거워진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은 현치사찰과 현지지도의 길에서 나를 만날 때마다 이제는 식사도 제때에 하고 잠도 제대로 자며 휴식도 하면서 건강에 깊은 주의를 돌려달라고 부탁하는데 자기 병도자를 위하여는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내가 모르는것이 아니다. 나는 한 나라의 령도자이기 전에 수령님의 전사이며 인민의 아들이다. 수령님의 전사로서, 인민의 아들로서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 ...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으뜸가는 강성국가로 만들고 우리 인민이 통일된 조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기 전에는 순간도 휴식을 할수 없다고, 자신께서는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 일하는것을 가장 큰 영광과 행복으로, 자랑으로 여기고있다고 절절히 하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모두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돌이켜보면 지난은 인류력사에 조국과 인민을 위한다는 정치가들이 인민의 어버이를 알지 못하고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 어떤 때도 바르지 않았고, 그이께서 바리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험난한 길을 앞장서서 파죽이 썩는듯 조국의 미래와 미래를 위해서고 대고조국인의 불결을 지켜주시는듯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늘 이 땅우에 하루빨리 강성국가를 건설하려는 자신의 목표는 높고, 오늘날의 현실만으로는 만족할수 없으며 계속 비약해나아가야 한다고 하시며 온 나라

인민을 레일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 일으키시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치산치수사업을 힘있게 벌려 조국산천을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로 꾸밀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으면 10~20년후에는 그 덕을 볼수 있다. 우리는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화를 부르고 전환시켜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오늘을 위하여 온을 살피고 레일을 위한 일과 함께 살아가는 데에 신심을 조성하고 조국을 수렴해, 원림화하는데서도 먼 앞날을 내다보고 후대들을 생각하며 정감있게 말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어서 레일은 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기 전에는 순간도 휴식을 할수 없다고, 자신께서는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 일하는것을 가장 큰 영광과 행복으로, 자랑으로 여기고있다고 절절히 하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모두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돌이켜보면 지난은 인류력사에 조국과 인민을 위한다는 정치가들이 인민의 어버이를 알지 못하고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 어떤 때도 바르지 않았고, 그이께서 바리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험난한 길을 앞장서서 파죽이 썩는듯 조국의 미래와 미래를 위해서고 대고조국인의 불결을 지켜주시는듯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늘 이 땅우에 하루빨리 강성국가를 건설하려는 자신의 목표는 높고, 오늘날의 현실만으로는 만족할수 없으며 계속 비약해나아가야 한다고 하시며 온 나라

기도 좋다고, 우리가 오늘에 덕을 보자고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레일을 내다보고 일을 하는것만큼 레일우라 하고는 좋겠다고 즉석에서 즉구 지시해주시었다.

레이를 위하여! 바로 여기에는 조국을 떠맡는 뿌리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것을 장그리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한생이 비껴갔다.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바랐던 만생남마저도 현지지도의 길에 걸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였으며 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쉬임없이 헌신하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어느때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적이 있다.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될 부강번영하는 조국의 모습이었다.

하기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하나의 크지 않은 창조물대하여도 조국의 레일을 안고 사는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보시었고 거기에서 커다란 만족을 느끼시었다.

고난의 행군시기 인민군인들에게 구할산유원지 참관도록을 건설하면서 《미래를 위하여 고난의 마지막해 1997》이라고 그 글을 보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 높이 평가하신것도 비록 오늘날은 배를 뚫으면서 고생을 하지만 앞으로 잘살수 있다는 배에 대한 인민군인들의 정신세계가 귀중하시었다.

주제 90(2001)년 5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경남도 현지지도하시 때였다.

새로 건설한 염소목장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오늘을 위한 노에 열매를 맺고 레일을 위한 노에 열매를 맺는 구호의 정신으로 염소목장을 꾸리었다는 의미에서 이곳에 《레이》이라는 이름을 붙여 로동자기를 내었으면 한다는 데 대하여 알게 되시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소박한 의견을 귀중히 여기시고 레일우라 하고는 것이 뜻도 좋고 부러기도 좋다고, 우리가 오늘에 덕을 보자고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레일을 내다보고 일을 하는것만큼 레일우라 하고는 좋겠다고 즉석에서 즉구 지시해주시었다.

레이를 위하여! 바로 여기에는 조국을 떠맡는 뿌리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것을 장그리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한생이 비껴갔다.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바랐던 만생남마저도 현지지도의 길에 걸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였으며 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쉬임없이 헌신하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어느때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적이 있다.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될 부강번영하는 조국의 모습이었다.

하기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하나의 크지 않은 창조물대하여도 조국의 레일을 안고 사는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보시었고 거기에서 커다란 만족을 느끼시었다.

고난의 행군시기 인민군인들에게 구할산유원지 참관도록을 건설하면서 《미래를 위하여 고난의 마지막해 1997》이라고 그 글을 보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 높이 평가하신것도 비록 오늘날은 배를 뚫으면서 고생을 하지만 앞으로 잘살수 있다는 배에 대한 인민군인들의 정신세계가 귀중하시었다.

주제 90(2001)년 5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경남도 현지지도하시 때였다.

새로 건설한 염소목장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오늘을 위한 노에 열매를 맺고 레일을 위한 노에 열매를 맺는 구호의 정신으로 염소목장을 꾸리었다는 의미에서 이곳에 《레이》이라는 이름을 붙여 로동자기를 내었으면 한다는 데 대하여 알게 되시었다.

을 중흥투진하신 아버지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자욱을 우리 어찌 눈물 없이 더듬을수 있겠는가.

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면서 가 곳마다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이 어려있는것을 목격한 한 해외동포는 어디 가나 그의 높은 뜻과 사람이 어려있는 거룩한 땅이니 리 성스러운 지역을 차를 타고 지나기가 송구스럽다고 저기의 격동된 심정을 터뜨리시었다.

정정 참신 단우의 수자로만 헤아릴수 없는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헌신의 로고속에 우리 조국땅우에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먼 후대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기묘 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섰으며 인민의 리상이 활짝 꽃피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일떠세운 희한한 창조물들을 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도 뜨겁게 들려오는듯하다. 이 모든 건설성과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단년제부로,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가 허리머를 졸라매고 고난을 겪으면서 투쟁한 보람이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후대를 다 오는의 건설성과를 놓고 로동당시대의 창조물이라고 긍지높이 자랑할것이다. ...

절세위인의 숭고한 미래관, 그것은 조국의 영원한 무궁번영을 확고히 담보하고 천만민민의 심장을 내 조국에 뚫어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맑고 밝은 현지지도강행군에 계시었다.

어느날에는 우리 걸음이 한걸음도 미치지 못하며 조국의 전진이 미치지 못하고, 날자를 보아가면서 편안한 걸음을 할수 없다고 하며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지않고 또 어느날엔가는 우리 로동계급이 보고싶다시며 한바탕도 먼길을 떠나고도 하시었다. 순간의 희곡도 없이 한평생을 넘으시고 때로는 지척도 분간할수 없는 무더기비속을 뚫고 여러 지역들

을 중흥투진하신 아버지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자욱을 우리 어찌 눈물 없이 더듬을수 있겠는가. 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면서 가 곳마다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이 어려있는것을 목격한 한 해외동포는 어디 가나 그의 높은 뜻과 사람이 어려있는 거룩한 땅이니 리 성스러운 지역을 차를 타고 지나기가 송구스럽다고 저기의 격동된 심정을 터뜨리시었다.

정정 참신 단우의 수자로만 헤아릴수 없는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헌신의 로고속에 우리 조국땅우에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먼 후대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기묘 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섰으며 인민의 리상이 활짝 꽃피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일떠세운 희한한 창조물들을 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도 뜨겁게 들려오는듯하다. 이 모든 건설성과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단년제부로,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가 허리머를 졸라매고 고난을 겪으면서 투쟁한 보람이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후대를 다 오는의 건설성과를 놓고 로동당시대의 창조물이라고 긍지높이 자랑할것이다. ...

절세위인의 숭고한 미래관, 그것은 조국의 영원한 무궁번영을 확고히 담보하고 천만민민의 심장을 내 조국에 뚫어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맑고 밝은 현지지도강행군에 계시었다.

어느날에는 우리 걸음이 한걸음도 미치지 못하며 조국의 전진이 미치지 못하고, 날자를 보아가면서 편안한 걸음을 할수 없다고 하며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지않고 또 어느날엔가는 우리 로동계급이 보고싶다시며 한바탕도 먼길을 떠나고도 하시었다. 순간의 희곡도 없이 한평생을 넘으시고 때로는 지척도 분간할수 없는 무더기비속을 뚫고 여러 지역들

을 중흥투진하신 아버지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자욱을 우리 어찌 눈물 없이 더듬을수 있겠는가. 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면서 가 곳마다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이 어려있는것을 목격한 한 해외동포는 어디 가나 그의 높은 뜻과 사람이 어려있는 거룩한 땅이니 리 성스러운 지역을 차를 타고 지나기가 송구스럽다고 저기의 격동된 심정을 터뜨리시었다.

정정 참신 단우의 수자로만 헤아릴수 없는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헌신의 로고속에 우리 조국땅우에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먼 후대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기묘 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섰으며 인민의 리상이 활짝 꽃피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일떠세운 희한한 창조물들을 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도 뜨겁게 들려오는듯하다. 이 모든 건설성과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단년제부로,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가 허리머를 졸라매고 고난을 겪으면서 투쟁한 보람이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후대를 다 오는의 건설성과를 놓고 로동당시대의 창조물이라고 긍지높이 자랑할것이다. ...

절세위인의 숭고한 미래관, 그것은 조국의 영원한 무궁번영을 확고히 담보하고 천만민민의 심장을 내 조국에 뚫어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맑고 밝은 현지지도강행군에 계시었다.

어느날에는 우리 걸음이 한걸음도 미치지 못하며 조국의 전진이 미치지 못하고, 날자를 보아가면서 편안한 걸음을 할수 없다고 하며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지않고 또 어느날엔가는 우리 로동계급이 보고싶다시며 한바탕도 먼길을 떠나고도 하시었다. 순간의 희곡도 없이 한평생을 넘으시고 때로는 지척도 분간할수 없는 무더기비속을 뚫고 여러 지역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위대한 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는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가장 친근하게 간직된 호칭이 있다.

우리 장군님! 오늘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천만군민을 하나의 대가정으로 이어주는 이 신성한 부름을 외워보느라 하면 하나의 가슴뜨거운 이야기 가 떠오른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 있는 령도력과 품고,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주제 84(1995)년 8월 15일이었다.

조국해방 50돌이 되는 뜻깊은 이날 한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신의주 수해지역 인민들에게 구호물자를 전달하러 갔던 일군을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장군님》이라는 호칭을 자신에 대한 우리 인민의 최고의 표창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앞으로 자신을 《우리 장군님》으로 부르며 따르는 인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에게 자신께서는 《우리 장군님》이라는 호칭을 자신에 대한 우리 인민의 최고의 표창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앞으로 자신을 《우리 장군님》으로 부르며 따르는 인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 지역 인민들이 생활필수품들을 받아안고 감격을 금치 못해하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

우리 장군님께서 비행기를 보내주셔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들을 다 안겨주시니 걱정이 없게 되었다고 고마움을 금치 못했던 인민들, 우리는 장군님만을 하늘처럼 믿고 있다고 한결같이 말하며 눈물을 흘리던 인민들이었다. 참으로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었다.

일군이 울리는 보고를 다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생각이 깊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 장군님》이란 말이... 이렇게 되되시며 더욱 무궁번영할 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차넘치고있다. **본사기자 백영 III**

라고 하시면서 다른 나라들도 《우리》라는 말이 있었지만 우리 나라에서처럼 이 말이 다정하고 친근하게, 우리 나라에서처럼 뜻이 깊고 뜨겁게 불리우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이의 뜻깊은 말씀은 일군으로 하여금 《우리》라는 말의 의미를 다스려 새겨보게 하였다. 일군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우리 장군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느끼게 되며 나를 령도자로서만이 아니라 한솔솔로 여기면서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주제 84(1995)년 8월 15일이었다.

조국해방 50돌이 되는 뜻깊은 이날 한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신의주 수해지역 인민들에게 구호물자를 전달하러 갔던 일군을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장군님》이라는 호칭을 자신에 대한 우리 인민의 최고의 표창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앞으로 자신을 《우리 장군님》으로 부르며 따르는 인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에게 자신께서는 《우리 장군님》이라는 호칭을 자신에 대한 우리 인민의 최고의 표창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앞으로 자신을 《우리 장군님》으로 부르며 따르는 인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 지역 인민들이 생활필수품들을 받아안고 감격을 금치 못해하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

우리 장군님께서 비행기를 보내주셔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들을 다 안겨주시니 걱정이 없게 되었다고 고마움을 금치 못했던 인민들, 우리는 장군님만을 하늘처럼 믿고 있다고 한결같이 말하며 눈물을 흘리던 인민들이었다. 참으로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었다.

일군이 울리는 보고를 다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생각이 깊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 장군님》이란 말이... 이렇게 되되시며 더욱 무궁번영할 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차넘치고있다. **본사기자 백영 III**

《우리 장군님》, 온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뿌리내린 이 세상 가장 친근한 호칭으로 위대한 그이께서 계시리라. **본사기자 립정호**

《우리 장군님》, 온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뿌리내린 이 세상 가장 친근한 호칭으로 위대한 그이께서 계시리라. **본사기자 립정호**

167만 4 610

167만 4 610여리에 비친 한평생

여리, 지구 물레를 굴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이 수자는 우리 장군님께서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이어가신 현지지도거리이다.

한평생 눈비와 땅에 배를 깔고 아전복차림으로 백두산령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으신 단우의 무려 1만 4 2 9 0여개에 달한다.

절세위인의 한평생을 전하여 주는 이 수자들을 음미해볼수록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의 심장속에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헌신의 길에 이어가신 위대한 어버이의 자애로운 모습이 숨엄히 안겨온다.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 일하는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자랑으로 여기시던 우리 장군님.

혁명활동의 전진간 가시는 걸음마다에, 찾으신 일터마다에 인민사랑의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꽃피우신 위대한 태양의 모습을 우리 어찌 천년이 가고 만년세월이 흐르든 잊을수 있으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제 103(2014)년 10월 24일에 발표하신 로작 《민족유산보존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송곳진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시고 민족사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헌신은 그리움이 더욱 불타오르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나라의 역사를 바로잡는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물들을 올바로 평가하고 해명하시어 정의로은 민족사를 더욱 빛내여주시었으며 선조들의 지혜와 재능이 깃든 문화유산들이 민족의 자긍심과 결핵을 이어주는 귀중한 재보로 빛을 뿌리게 하시었다.」**

민족은 력사속에 존재하며 력사와 더불어 발전해나간다. 여기에 민족의 역사를 정확히 밝히고 정립해갈 길이 빛내어가는것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대대손손 떨치기 하는 중대한 애국사업으로 된다.

우리 민족은 인류문명의 령명기부터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독자적으로 자기의 고유한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력사발전의 각이한 단계마다 세계문화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며 인류문화사발전에서 크게 기여하는 애제였고 슬기로운 민족이다. 세계 5대명명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대동강문화를 창조한것도 우리 선조들이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측우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신 장군님께서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이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시었습다.」**

누구나 헤쳐올수 있는 길, 누구나 걸을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자신이 책임졌다는 숭고한 사명감과 열렬한 사랑을 간직한 위인만이 걸을수 있는 헌신의 길이었다.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 새겨진 아버지장군님의 고귀한 헌신의 자욱은 얼마이며 그 길우에 개척과 헌신의 불길은 얼마나 거세게 타번졌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명도의 거룩한 뜻 자욱을 새기신 조선인민군구사물류경수체 105명조식단,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힌 무포의 낫시러, 문화예술혁명의 포성속에 이룩된

167만 4 610여리에 비친 한평생

우리 민족사를 온 세상에 빛내어주시는 절세의 애국자

을 새롭게 발굴고증하며 외래침략자들에게 의하여 파괴된 유적들을 원상대로 복구개건하도록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문화유산은 민족의 재보로 빛나게 되었다. 우리 민족의 원시조물 찾아가시고 우리 나라에서의 첫 국가의 시원을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우리 민족이 새대와 세대를 이어 영원토록 전해가야 할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뜻을 그대로 체현하고 받들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에 의하여 우리 민족사는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다.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의 유구성과 독자성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의 우수성을 깊이 심어주시기위하여 장군님의 족자. 바로 여기에 열렬한 애국자, 민족의 어머니이신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위인상이 있다.

20세기의 문예부흥, 황철의 전면적자동화와 수십리 날바다에 솟아오른 서해갑문, 2년 남짓한 기간에 수백개의 대상들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세운 평양변영기...

그뿐이 아니다. 고난의 칼바람이 이 땅에 불어치던 시기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조국수호의 전란리는 인민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하여주었는가.

선군장정의 만단사연을 전하는 철명, CNC화설현을 위하여 헤쳐가신 조국수호의 전란리는 인민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하여주었는가.

선군장정의 만단사연을 전하는 철명, CNC화설현을 위하여 헤쳐가신 조국수호의 전란리는 인민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하여주었는가.

선군장정의 만단사연을 전하는 철명, CNC화설현을 위하여 헤쳐가신 조국수호의 전란리는 인민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하여주었는가.

선군장정의 만단사연을 전하는 철명, CNC화설현을 위하여 헤쳐가신 조국수호의 전란리는 인민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하여주었는가.

선군장정의 만단사연을 전하는 철명, CNC화설현을 위하여 헤쳐가신 조국수호의 전란리는 인민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하여주었는가.

선군장정의 만단사연을 전하는 철명, CNC화설현을 위하여 헤쳐가신 조국수호의 전란리는 인민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하여주었는가.

겨운 사연도 추억한다. 함경남도에 대한 현지지도를 초인간적인 의지로 마치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몇몇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었다.

동무들과 헤어지기에 앞서 식사나 한끼 나누어주셨다고 정경이 말씀하시며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음식을 권하시었다. 전혀 수저를 들지 못하시면서 자기에게는 건강하니 걱정을 하지 말라고, 요즘 밥맛이 좀 없어 그렇뿐이라고 일군들을 위로해 주시며 오히려 미소를 지으시던 우리 장군님.

작별인사를 올리며 일군들이 건강을 돌보실것을 거듭하여 아뢰일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렇게 일하는데 습관이 돼서 일없다고, 자신께서는 아직도 가야 할 곳이 많다고 하시며 무거운 마음으로 온 나라에 승리의 불길이 타번진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을 이룰 앞날 2월의 그날에도 하나울정보정보터와 광복지구 상업유업에 인민사랑의 자욱을 새기시었고 생의 마지막날에 오르신 인민행아전철차에 오르신

이 좌우되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찍이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에 정력적인 사상리론 활동으로 우리 민족사학에서 제1위로 이름을 하나하나 정립하시었다. 《우리 나라에서 발굴된 구석기시대의 유적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노예사회국가형성문제에 대하여》, 《삼국통일론》, 《삼국통일론》 등 수많은

요인문제, 중세농민투쟁의 특징과 실제현황, 력사적의문제, 력사학들의 사료적가치와 그 제한성에 대한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분석하시어 바로잡아 주시었다. 또한 애국정열을 받든 시 민족의 자주원문제를 중심에 놓고 평가하여야 한다는것을 비롯하여 력사인물평가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 정력적인 지도가 있었기에 우리의 민족사는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재평가되고 올바로 해명되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은 유구한 민족사를 가진 국가 문명하고 존엄높은 민족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뚜렷이 실증되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민족사를 빛내인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요소는 또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재능이 깃든 민족문화유산들을 올바로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이어주는 귀중한 재보와 빛을 뿌리게 하여주시었다.

문화유산은 민족문화의 발생과 발전의 전과정은 물론 선행세대와 후세들을 민족정통으로 이어주는 핵과 판과 같다고 말할수 있다. 민족의 문화유산은 민족의 넋과 슬기, 재능이 그대로 담겨져있으며 그것이 사람들과 뜨거워 애국적정열을 키우는 귀중한 원천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선조들이 이룩한 우수한 문화적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오직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자신의 심신을 불태워오신 위대한 어버이시였기에 천만민민을 위대한 태양의 모습을 영원히 잊지 못하는것이다.

167만 4 610여리, 이것은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 철야강행군, 일명철리강행군으로 우리 조국의 활로를 열어나간 전설적인 대장장이였고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억년기들을 마련하신 나날이었다.

위대한 어버이의 한평생이 있어 오늘 우리 조국은 자주, 신군, 사회주의로 빛나는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누리에 떨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고있는것이다.

김일성 민족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인 천만군민은 절세의 애국자, 자애로운 어버이의 영웅적인 강행군한생을 영원토록 전해갈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강행군혁명실록을 선군선진의 만년보도로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강행군영의 새로운 년대들을 끝없이 펼쳐갈것이다.

본사기자 리금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다. - 김책수산사업소에서 -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신현군 유물 연혁소개실을 잘 꾸려놓고 리당위원회에

연혁소개실을 잘 꾸려놓고 리당위원회에 연혁소개실참관을 통하여 리안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수습년전 자기들의 생장을 찾아오시어 농장원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일꾼들의 결핵을 더욱 단정하게 하여주시었다.

한 친어버이의 사랑을 가슴깊이 새겨안고있다.

한 친어버이의 사랑을 가슴깊이 새겨안고있다. 리안의 모든 농장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운을 사랑에 새기고 영령의 일에서 일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있다.

로동농민 리정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상전래의 우수한 민족정통을 적극 살려 온 나라에 민족의 당과 향취가 차넘치게 하시었다. 녀성들속에서 유아하고 고상한 조선치마저고리를 즐겨입도록 하고 대중음악과 지방토박이음악을 찾아내어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시는데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일로 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민족사학발전의 선봉자로써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대대손손 떨치기 하는 중대한 애국사업으로 된다.

우리 민족은 인류문명의 령명기부터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독자적으로 자기의 고유한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력사발전의 각이한 단계마다 세계문화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며 인류문화사발전에서 크게 기여하는 애제였고 슬기로운 민족이다. 세계 5대명명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대동강문화를 창조한것도 우리 선조들이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측우기

한 친어버이의 사랑을 가슴깊이 새겨안고있다.

한 친어버이의 사랑을 가슴깊이 새겨안고있다. 리안의 모든 농장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운을 사랑에 새기고 영령의 일에서 일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있다.

로동농민 리정수

은을 내는 농작물생육예보체계에 기초한 과학농사작전

안 악 군 오 국 협 동 농 장 일 군 들 의 사 업 에 서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국협동농장의 전체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전국의 앞장에서 나가야 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5년전 11월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알곡 정보당 10t을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최근 3년동안 연이어 알곡 정보당 10t이상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비결은 한마디로 농작물생육예보체계를 보다 과학적이고 영연한 토대우에 올려놓은데 기초하여 농작물비배관리를 필지별생육조건에 맞게 원리적으로 짜고드는데 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급하다고 물이 있는 곳에 그냥 온도를 쫓았다가 허공에 뿜아 들고 눈금을 보았던것이다. 결국 온도가 레폭에 매달린 물방울과 이른봄의 쌀쌀한 별바람이 온도의 수온을 떨어주는 작용을 한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땅속온도가 1℃만 낮아도 작트는물이 떨어져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는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소홀히 대할 문제가 아니었다.

내려갔던 기상장은 중요한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였다. 비료주는 시기와 양이 일률적이었던것이다.

(포전별, 필지별 논벼의 생육상태가 다른 조건에서 이런 식의 비료주기가 옹당한 효과를 볼수 있지 않는가?)

기상장은 작업반 초급일군들과 함께 포전에 나가 10개 정도의 생육조사구를 선택하고 정확한 일나이를 조사하였다. 일나이가 하나같지 않았다. 평균 한두일이 차이였다. 그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한일이나 온도에 온도는 비료주기가 늦어져 병에 걸리거나 여름기가 잘 안된다. 뿐만 아니라 일나이가 적은 시기에 비료를 준 포전에서는 마지막까지 영양을 담보하지 못할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정보당 알곡수확도가 1t이상 떨어진다것은 자명한 리지였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하나 따져보는 과정에 기상장은 농작물의 생육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는 생육조사구가 더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의 결심을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모두가 지지해나섰다. 결국 생육조사구를 작업반이나 분조단위로 아니라 포전과 필지별특성에 준하여 평균 2정보에 한개씩 정하게 되였다.

비료를 많이 쓰면서도 좋은 결실을 거둘수 없었다.

그로부터 열을 남긴한 시일이 지났다. 이월세라 그 작업반장이 눈물이 글썽한 얼굴을 목 펴면제 기사장앞에 나타났다. 비료주는 시기를 앞당겼기때문에 이삭당알수가 형성되는 때에 줄 비료가 적어졌다것이었다. 엄중한것은 필요없는 아지가 많아져 정보당 1t이상 알곡생산량이 떨어지게 되었는데도 못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주신 정보당 10t 생산과업을 관철할수 없다는것을 안타게 되였다.

어느 고리부러 풀어야 했는가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1~2t 더 끌어올리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더구나 오래동안 정보당 8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해온 이곳 농장의 경우 10t 생산과제는 만만치 않았다.

농장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농장을 몸소 찾아주시었던 영광의 그날을 뜨겁게 돌이켜보면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할 각오를 안고 지난 기간의 농사과정을 분석하면서 연구를 심화하였다.

현대의 농사는 과학농사, 기술농사이며 그 직접적담당자는 작업반 기술원들이다. 매일 비료를 만들고 생육상태를 관찰하여 관리위원회에 투배해주는 사람들도 그들이다. 기술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의하여 한해 농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방법도 은을 낼수 없다는것이 일군들이 찾은 교훈이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하나 따져보는 과정에 기상장은 농작물의 생육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는 생육조사구가 더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농작물생육예보체계에 철저히 의거하여 논벼비배관리를 하지 않으면 옹근소출을 못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주신 정보당 10t 생산과업을 관철할수 없다는것을 명심합시다.》

이것이 옳은가를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다는것이였다. 그에게 기상장은 준철하게 말했다.

농작물생육예보체계에 철저히 의거하여

농장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농장을 몸소 찾아주시었던 영광의 그날을 뜨겁게 돌이켜보면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할 각오를 안고 지난 기간의 농사과정을 분석하면서 연구를 심화하였다.

이렇게 과학농사작전을 위해 관리위원회의 지휘력향상부터 강화한것이 보다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농작물생육예보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이곳 농장일군들이 푼 첫 매듭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일군들은 작업반 기술원으로는 포전관리공을 해보고 분조장직력도 있으며 사상적각도와 기술실용성까지 높은 농장원들속에서 선발하는 원칙을 세웠다. 그레야 과학농사작전에서 세라세롭게 계기되는 기술문제들을 혁신적인 안목에서 보고 대하며 드림없이 집행할수 있었던것이다. 작업반 기술원들 열을 뽐내며 수확하듯 한 결과의 좋았다. 모든 작업반 기술원들이 기술적대탈만, 분조들에 대한 영농공정지도는 곧 정확한 생육상태장악과 분석, 비배관리 등의 기술지도과업이다.

그의 결심을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모두가 지지해나섰다. 결국 생육조사구를 작업반이나 분조단위로 아니라 포전과 필지별특성에 준하여 평균 2정보에 한개씩 정하게 되였다.

《농작물생육예보체계에 철저히 의거하여 논벼비배관리를 하지 않으면 옹근소출을 못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주신 정보당 10t 생산과업을 관철할수 없다는것을 명심합시다.》

이것이 옳은가를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다는것이였다. 그에게 기상장은 준철하게 말했다.

농작물생육예보체계에 철저히 의거하여

이런 결론을 내린 일군들은 기술원들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사업이 있었다. 어느해인가 제 4 작업반에 내려갔던 관리위원장 황윤남동무는 농장원들이 관리위원회에서 내려보낸 계획대로 비배관리를 진행하지 않고있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알고보니 이 작업반을 담당한 기술일군이 그때까지도 도착하지 못하여 작업반장의 결심으로 작업조치를 했다는것이였다. 얼마후에 도착한 기술일군에게 관리위원장은 그 이유를 따져물었다. 그는 여러 작업반을 돌다나니 늦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과학농사작전을 위해 관리위원회의 지휘력향상부터 강화한것이 보다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농작물생육예보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이곳 농장일군들이 푼 첫 매듭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일군들은 작업반 기술원으로는 포전관리공을 해보고 분조장직력도 있으며 사상적각도와 기술실용성까지 높은 농장원들속에서 선발하는 원칙을 세웠다. 그레야 과학농사작전에서 세라세롭게 계기되는 기술문제들을 혁신적인 안목에서 보고 대하며 드림없이 집행할수 있었던것이다. 작업반 기술원들 열을 뽐내며 수확하듯 한 결과의 좋았다. 모든 작업반 기술원들이 기술적대탈만, 분조들에 대한 영농공정지도는 곧 정확한 생육상태장악과 분석, 비배관리 등의 기술지도과업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일군들은 기술원들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사업이 있었다. 어느해인가 제 4 작업반에 내려갔던 관리위원장 황윤남동무는 농장원들이 관리위원회에서 내려보낸 계획대로 비배관리를 진행하지 않고있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알고보니 이 작업반을 담당한 기술일군이 그때까지도 도착하지 못하여 작업반장의 결심으로 작업조치를 했다는것이였다. 얼마후에 도착한 기술일군에게 관리위원장은 그 이유를 따져물었다. 그는 여러 작업반을 돌다나니 늦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이것이 옳은가를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다는것이였다. 그에게 기상장은 준철하게 말했다.

이것이 옳은가를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다는것이였다. 그에게 기상장은 준철하게 말했다.

농작물생육예보체계에 철저히 의거하여

이런 결론을 내린 일군들은 기술원들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사업이 있었다. 어느해인가 제 4 작업반에 내려갔던 관리위원장 황윤남동무는 농장원들이 관리위원회에서 내려보낸 계획대로 비배관리를 진행하지 않고있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알고보니 이 작업반을 담당한 기술일군이 그때까지도 도착하지 못하여 작업반장의 결심으로 작업조치를 했다는것이였다. 얼마후에 도착한 기술일군에게 관리위원장은 그 이유를 따져물었다. 그는 여러 작업반을 돌다나니 늦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과학농사작전을 위해 관리위원회의 지휘력향상부터 강화한것이 보다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농작물생육예보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이곳 농장일군들이 푼 첫 매듭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일군들은 작업반 기술원으로는 포전관리공을 해보고 분조장직력도 있으며 사상적각도와 기술실용성까지 높은 농장원들속에서 선발하는 원칙을 세웠다. 그레야 과학농사작전에서 세라세롭게 계기되는 기술문제들을 혁신적인 안목에서 보고 대하며 드림없이 집행할수 있었던것이다. 작업반 기술원들 열을 뽐내며 수확하듯 한 결과의 좋았다. 모든 작업반 기술원들이 기술적대탈만, 분조들에 대한 영농공정지도는 곧 정확한 생육상태장악과 분석, 비배관리 등의 기술지도과업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일군들은 기술원들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사업이 있었다. 어느해인가 제 4 작업반에 내려갔던 관리위원장 황윤남동무는 농장원들이 관리위원회에서 내려보낸 계획대로 비배관리를 진행하지 않고있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알고보니 이 작업반을 담당한 기술일군이 그때까지도 도착하지 못하여 작업반장의 결심으로 작업조치를 했다는것이였다. 얼마후에 도착한 기술일군에게 관리위원장은 그 이유를 따져물었다. 그는 여러 작업반을 돌다나니 늦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이것이 옳은가를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다는것이였다. 그에게 기상장은 준철하게 말했다.

이것이 옳은가를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다는것이였다. 그에게 기상장은 준철하게 말했다.

농작물생육예보체계에 철저히 의거하여

이런 결론을 내린 일군들은 기술원들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사업이 있었다. 어느해인가 제 4 작업반에 내려갔던 관리위원장 황윤남동무는 농장원들이 관리위원회에서 내려보낸 계획대로 비배관리를 진행하지 않고있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알고보니 이 작업반을 담당한 기술일군이 그때까지도 도착하지 못하여 작업반장의 결심으로 작업조치를 했다는것이였다. 얼마후에 도착한 기술일군에게 관리위원장은 그 이유를 따져물었다. 그는 여러 작업반을 돌다나니 늦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과학농사작전을 위해 관리위원회의 지휘력향상부터 강화한것이 보다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농작물생육예보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이곳 농장일군들이 푼 첫 매듭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일군들은 작업반 기술원으로는 포전관리공을 해보고 분조장직력도 있으며 사상적각도와 기술실용성까지 높은 농장원들속에서 선발하는 원칙을 세웠다. 그레야 과학농사작전에서 세라세롭게 계기되는 기술문제들을 혁신적인 안목에서 보고 대하며 드림없이 집행할수 있었던것이다. 작업반 기술원들 열을 뽐내며 수확하듯 한 결과의 좋았다. 모든 작업반 기술원들이 기술적대탈만, 분조들에 대한 영농공정지도는 곧 정확한 생육상태장악과 분석, 비배관리 등의 기술지도과업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일군들은 기술원들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사업이 있었다. 어느해인가 제 4 작업반에 내려갔던 관리위원장 황윤남동무는 농장원들이 관리위원회에서 내려보낸 계획대로 비배관리를 진행하지 않고있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알고보니 이 작업반을 담당한 기술일군이 그때까지도 도착하지 못하여 작업반장의 결심으로 작업조치를 했다는것이였다. 얼마후에 도착한 기술일군에게 관리위원장은 그 이유를 따져물었다. 그는 여러 작업반을 돌다나니 늦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이것이 옳은가를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다는것이였다. 그에게 기상장은 준철하게 말했다.

이것이 옳은가를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다는것이였다. 그에게 기상장은 준철하게 말했다.

농작물생육예보체계에 철저히 의거하여

이런 결론을 내린 일군들은 기술원들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사업이 있었다. 어느해인가 제 4 작업반에 내려갔던 관리위원장 황윤남동무는 농장원들이 관리위원회에서 내려보낸 계획대로 비배관리를 진행하지 않고있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알고보니 이 작업반을 담당한 기술일군이 그때까지도 도착하지 못하여 작업반장의 결심으로 작업조치를 했다는것이였다. 얼마후에 도착한 기술일군에게 관리위원장은 그 이유를 따져물었다. 그는 여러 작업반을 돌다나니 늦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과학농사작전을 위해 관리위원회의 지휘력향상부터 강화한것이 보다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농작물생육예보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이곳 농장일군들이 푼 첫 매듭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일군들은 작업반 기술원으로는 포전관리공을 해보고 분조장직력도 있으며 사상적각도와 기술실용성까지 높은 농장원들속에서 선발하는 원칙을 세웠다. 그레야 과학농사작전에서 세라세롭게 계기되는 기술문제들을 혁신적인 안목에서 보고 대하며 드림없이 집행할수 있었던것이다. 작업반 기술원들 열을 뽐내며 수확하듯 한 결과의 좋았다. 모든 작업반 기술원들이 기술적대탈만, 분조들에 대한 영농공정지도는 곧 정확한 생육상태장악과 분석, 비배관리 등의 기술지도과업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일군들은 기술원들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사업이 있었다. 어느해인가 제 4 작업반에 내려갔던 관리위원장 황윤남동무는 농장원들이 관리위원회에서 내려보낸 계획대로 비배관리를 진행하지 않고있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알고보니 이 작업반을 담당한 기술일군이 그때까지도 도착하지 못하여 작업반장의 결심으로 작업조치를 했다는것이였다. 얼마후에 도착한 기술일군에게 관리위원장은 그 이유를 따져물었다. 그는 여러 작업반을 돌다나니 늦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이것이 옳은가를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다는것이였다. 그에게 기상장은 준철하게 말했다.

이것이 옳은가를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다는것이였다. 그에게 기상장은 준철하게 말했다.

농작물생육예보체계에 철저히 의거하여

이런 결론을 내린 일군들은 기술원들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사업이 있었다. 어느해인가 제 4 작업반에 내려갔던 관리위원장 황윤남동무는 농장원들이 관리위원회에서 내려보낸 계획대로 비배관리를 진행하지 않고있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알고보니 이 작업반을 담당한 기술일군이 그때까지도 도착하지 못하여 작업반장의 결심으로 작업조치를 했다는것이였다. 얼마후에 도착한 기술일군에게 관리위원장은 그 이유를 따져물었다. 그는 여러 작업반을 돌다나니 늦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과학농사작전을 위해 관리위원회의 지휘력향상부터 강화한것이 보다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농작물생육예보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이곳 농장일군들이 푼 첫 매듭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일군들은 작업반 기술원으로는 포전관리공을 해보고 분조장직력도 있으며 사상적각도와 기술실용성까지 높은 농장원들속에서 선발하는 원칙을 세웠다. 그레야 과학농사작전에서 세라세롭게 계기되는 기술문제들을 혁신적인 안목에서 보고 대하며 드림없이 집행할수 있었던것이다. 작업반 기술원들 열을 뽐내며 수확하듯 한 결과의 좋았다. 모든 작업반 기술원들이 기술적대탈만, 분조들에 대한 영농공정지도는 곧 정확한 생육상태장악과 분석, 비배관리 등의 기술지도과업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일군들은 기술원들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사업이 있었다. 어느해인가 제 4 작업반에 내려갔던 관리위원장 황윤남동무는 농장원들이 관리위원회에서 내려보낸 계획대로 비배관리를 진행하지 않고있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알고보니 이 작업반을 담당한 기술일군이 그때까지도 도착하지 못하여 작업반장의 결심으로 작업조치를 했다는것이였다. 얼마후에 도착한 기술일군에게 관리위원장은 그 이유를 따져물었다. 그는 여러 작업반을 돌다나니 늦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이것이 옳은가를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다는것이였다. 그에게 기상장은 준철하게 말했다.

이것이 옳은가를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다는것이였다. 그에게 기상장은 준철하게 말했다.

농작물생육예보체계에 철저히 의거하여

이런 결론을 내린 일군들은 기술원들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사업이 있었다. 어느해인가 제 4 작업반에 내려갔던 관리위원장 황윤남동무는 농장원들이 관리위원회에서 내려보낸 계획대로 비배관리를 진행하지 않고있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알고보니 이 작업반을 담당한 기술일군이 그때까지도 도착하지 못하여 작업반장의 결심으로 작업조치를 했다는것이였다. 얼마후에 도착한 기술일군에게 관리위원장은 그 이유를 따져물었다. 그는 여러 작업반을 돌다나니 늦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과학농사작전을 위해 관리위원회의 지휘력향상부터 강화한것이 보다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농작물생육예보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이곳 농장일군들이 푼 첫 매듭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일군들은 작업반 기술원으로는 포전관리공을 해보고 분조장직력도 있으며 사상적각도와 기술실용성까지 높은 농장원들속에서 선발하는 원칙을 세웠다. 그레야 과학농사작전에서 세라세롭게 계기되는 기술문제들을 혁신적인 안목에서 보고 대하며 드림없이 집행할수 있었던것이다. 작업반 기술원들 열을 뽐내며 수확하듯 한 결과의 좋았다. 모든 작업반 기술원들이 기술적대탈만, 분조들에 대한 영농공정지도는 곧 정확한 생육상태장악과 분석, 비배관리 등의 기술지도과업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일군들은 기술원들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사업이 있었다. 어느해인가 제 4 작업반에 내려갔던 관리위원장 황윤남동무는 농장원들이 관리위원회에서 내려보낸 계획대로 비배관리를 진행하지 않고있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알고보니 이 작업반을 담당한 기술일군이 그때까지도 도착하지 못하여 작업반장의 결심으로 작업조치를 했다는것이였다. 얼마후에 도착한 기술일군에게 관리위원장은 그 이유를 따져물었다. 그는 여러 작업반을 돌다나니 늦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이것이 옳은가를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다는것이였다. 그에게 기상장은 준철하게 말했다.

이것이 옳은가를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다는것이였다. 그에게 기상장은 준철하게 말했다.

농작물생육예보체계에 철저히 의거하여

이런 결론을 내린 일군들은 기술원들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사업이 있었다. 어느해인가 제 4 작업반에 내려갔던 관리위원장 황윤남동무는 농장원들이 관리위원회에서 내려보낸 계획대로 비배관리를 진행하지 않고있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알고보니 이 작업반을 담당한 기술일군이 그때까지도 도착하지 못하여 작업반장의 결심으로 작업조치를 했다는것이였다. 얼마후에 도착한 기술일군에게 관리위원장은 그 이유를 따져물었다. 그는 여러 작업반을 돌다나니 늦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과학농사작전을 위해 관리위원회의 지휘력향상부터 강화한것이 보다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농작물생육예보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이곳 농장일군들이 푼 첫 매듭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일군들은 작업반 기술원으로는 포전관리공을 해보고 분조장직력도 있으며 사상적각도와 기술실용성까지 높은 농장원들속에서 선발하는 원칙을 세웠다. 그레야 과학농사작전에서 세라세롭게 계기되는 기술문제들을 혁신적인 안목에서 보고 대하며 드림없이 집행할수 있었던것이다. 작업반 기술원들 열을 뽐내며 수확하듯 한 결과의 좋았다. 모든 작업반 기술원들이 기술적대탈만, 분조들에 대한 영농공정지도는 곧 정확한 생육상태장악과 분석, 비배관리 등의 기술지도과업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일군들은 기술원들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사업이 있었다. 어느해인가 제 4 작업반에 내려갔던 관리위원장 황윤남동무는 농장원들이 관리위원회에서 내려보낸 계획대로 비배관리를 진행하지 않고있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알고보니 이 작업반을 담당한 기술일군이 그때까지도 도착하지 못하여 작업반장의 결심으로 작업조치를 했다는것이였다. 얼마후에 도착한 기술일군에게 관리위원장은 그 이유를 따져물었다. 그는 여러 작업반을 돌다나니 늦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이것이 옳은가를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다는것이였다. 그에게 기상장은 준철하게 말했다.

이것이 옳은가를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다는것이였다. 그에게 기상장은 준철하게 말했다.

체육의 과학화실현에 이바지해갈 드높은 열의

제 18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 시회장을 돌아보고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부문에서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 현대체육과학발전추세를 바로세우고 체육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하였습니다.》

얼마전 3대혁명전시관에서는 제18차 전국체육과학성과전 시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각지의 많은 단위들에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100여건의 과학기술과목을 출품하였다.

그중에서 특별히 눈길을 끄는 체육성악재 만경대체육부작 제작소의 전시대였다. 전시대에선 제작소에서 우리의 기술로

선수들의 몸형태와 시대의 미감에 맞게 만든 여러 종류의 경기복, 훈련복 등이 전시되어있었다. 더욱 흥미있는것은 최근에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2014년 세계경기선수대회 때 우리 선수들이 제작소에서 만든 경기복들을 입고 경기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쟁취하였다는 사실이었다. 참가자들은 이 구동성으로 제작소에서 제작한 경기복은 물론 훈련복 등이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체육기자재부에서 이룩된 성과에서 받은 깊은 감명을 안고 우리는 체육의약물부문의 전시품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관도봉체육단에서 출품한

어느 한 전시품은 체육단의 체육의료연구소 김우일동무가 고심하던 연구결과 우리 나라의 원료에 의거하여 자체로 만들어 현실에 도입한것이었다. 전시품은 약력표준이 높았으므로 하여 참가자들은 눈길을 끌었다.

축구를 비롯하여 경기도에서 생기는 선수들의 외상치료를 응급하는 이러한 의약품은 얼마든지 국산화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는 좋은 성과였다. 김우일동무는 이밖에도 여러건의 가치있는 체육의학연구성과를 전시회에 내놓았다.

동명산체육단 등에서 내놓은 갖가지 체육의약품과 영양식품들도 체육의 과학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탐구의 세계를 끊임없이 펼쳐가는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열의가 짙게 어려있었다.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체육의 과학화실현에 바쳐가는 청년대학생들의 불같은 사색과 탐구의 열정도 느낄수 있었다.

함경남도의 전시대에서는 함흥의대학 학생들이 내놓은 전시품들도 볼수 있었다. 이 대학 학생인 김준혁동무는 활소기, 사격선수들의 기술발전시키기, 내의의가 있는 체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손일일동무는 원기가 매우 적게 들고 어디서나 쉽게 도입할수 있으며 검사속도가 빠르고 정확성이 높은 체육의학설비에 대하여, 배순일동무는 살구를 주원료로 하는 여러가지 체육영양식품에 대하여 간담회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나무모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간다. -태권군산림경영소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독자의 필지

세상에 두번다시 태어났습니다

제가 구급으로 어느 한 중앙병원의 신장과에 실려온것은 지난 4월이였습니다. 즉시 저를 소생시키기 위한 치료전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나날 저를 위해 보던 일군들이 기울인 정성을 저는 회복된 후에야 다소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소생시키기 위해 파장 박형철, 담광의사 오경희, 간호

독자의 필지

세상에 두번다시 태어났습니다

원 김영숙동무를 비롯한 신장과의 의료진단은 낮에 밤을 이어 치료투투를 벌리였습니다. 협의의 환만 하여도 수차례, 저의 몸은 수십가지... 며칠이 지나서 말도 제대로 할수 없던 저는 완쾌되었습니다. 보던 일군들이 평범한 로동자인 저를 위해 바친 정성을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독자의 필지

세상에 두번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들뿐이 아닙니다. 평양시식료일용품공업관리국 중구내생산업조합의 일군들인 김의관, 김영숙동무들과 외성작업반의 반장 장금숙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원들이 병을 빨리 더고 일어나 혁명투투에 다시 서고 힘과 용기를 안겨줄 때 저는 끝내 눈물을 흘리고야말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가 세상에 제일입니다. 진정 저는 이렇게 세상에 두번다시 태어났습니다. 중구역 오산동 18인민반 허성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강석주동지가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강석주동지는 2일 민주대학사당에서 작별담화하는 알력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강석주동지가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드르 제모던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사판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강석주동지가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드르 제모던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사판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라오스특명전권대사 연회

연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동지와 리명남 대외경제성, 조선로소친선협회 위원장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라오스특명전권대사 연회

연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동지와 리명남 대외경제성, 조선로소친선협회 위원장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라오스특명전권대사 연회

연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동지와 리명남 대외경제성, 조선로소친선협회 위원장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말레이시아에 갔던 조선로동당 대표단 귀국

말레이시아 전국말라이통일 당대회에 참가하였던 박군광

말레이시아에 갔던 조선로동당 대표단 귀국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2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말레이시아에 갔던 조선로동당 대표단 귀국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2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식용경제 식물자원과 그 이용

라고 할수 있는 광범품은 굵고 긴 잎을채취 산나물로 리용한다. 수리취, 큰수리취 등은 자라는 어린 식물체를 뜯어 데친 다음 취미를 해먹을수 있다. 건에서 좋은 산나물로서는 물가에서 많이 자라는 미나리와 순가락황생애도 있다. 이른봄에 나는 산나물에는 산넛나무나 목은발에서 많이 자라는 달래, 냉이, 꽃다지, 부추, 기름나물도 있다. 부리를 산나물로 리용하는 도라지, 더덕, 단삼과 잔대속에 속하는 여러가지 종류들은 건강식품에 속한다고 말할수 있다. 도라지는 낮은 산지대에서 많이 자라며 만삼과 같은것은 높은 산지대에서 많이 자란다. 산나물에는 두릅나무, 화살나무에서처럼 봄에 들어나는 새순이나 잎을 리용하는것들도 있다. 두릅나무에서 봄에 들어나는 새순을 두릅이라고 하고 화살나무에서 봄에 일찍 나오는 어린잎을 훑살나무라고 부르며 국거리감으로 많이 리용한다. 우리 나라 산지에는 산넛나무 무 또한 무전장이다. 들깨나무, 팔레나무, 산넛나무, 절판나무와 같은 열매나무들은 함경북도, 량강도와 같은 곳에 있는 높은 지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에 분포되어있다. 그중에서도 들깨나무는 자원이 제일 많고

뜨거운 애국의 마음

침진시 수남구역 신항1동 51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철동무의 가정에서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온 가족이 모여 당의 웅대한 대사업전투에 따라 천지개벽되고있는 세조기 축산기건설전투에 보낼 지원 물자를 마련해가는 이 기쁨을 어디에 비기랴. 어제는 청진시에 위대한 대사업전투의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뜨거운 지성을

뜨거운 애국의 마음

바치고 오늘은 세조기 축산기건설에 이바지할 열정으로 가슴 불태우며 활짝 피었다. 이 땅이던 가나 평범한 가정에서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내는 애국의 마음속에 보람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있으니 정녕 우리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신홍혁



주체사상신봉자들이 려친 심장의 고백

위대한 사상과 업적에는 만민의 열화같은 호모와 칭송이 따르기 마련이다. 세상사람들은 이 진리를 세계 5대륙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이 목척했 던 심장의 고백을 통해 절감하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

여 인류의 찬란한 미래, 전세계에서의 주체사상의 승리는 더욱

프랑스 학자의 절절한 당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였던 프랑스의 베르테르 부도가 우리 나라를 세번이나 찾아왔을 때였다. 평양에 도착한 그는 이미전부터 알고있던 남친의 병으로 학술연구사업은 고사하고 자리에 누워 병과의 싸움을 하지 않았던 안도였다. 그후 프랑스에 돌아간 그는 자기의 동료들에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한번 믿으신 전 사들에 대해서만 아니라 그의 후대까지 보살펴주고 빛나게 주시는 위대한분들이라고 절절하게 이야기하곤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으면 자그마한 비를 하나 세워달라. 붉은 대리석에 태양을 그리고 그림에 오각형을 새겨넣어라. 태양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를 상징하며 오각별은 태양의 두리에 걸속된 5대륙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미담이다.»

도서에 어린 위인 흉모

주체89(2000)년 4월 주체사상국제연구소리사였던 제15차 회의에서 명예리사장으로 선출된 리노우에 슈타이너의 머리에에는 복잡다단하였던 20세기 마지막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사회주의가 일찍이 도 진흥을 겪게 되자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사회주의의 위대한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다 늘어놓았다. 바로 이러한 시기 진보적인인류

주시였으며 세계정치사에 있어 본격이 없는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정의 철추를 내리시었다. 정녕 어버이장군님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행님의 사상과 평도를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세계사화위업발전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신 철세의 위인이시이다.

이노우에 슈타이너는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21세기를 주름잡으시는 위대한 김정일총비서는 새 세기의 위인이시라고 동료들에게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며 그의 위인상을 소개선전하는 글을 집필하는데 모든 정력을 기울였다. 주체91(2002)년 2월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도서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총비서》를 집필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그는 도의 머리말에서 김정일총비서까지를 읽으면서 우리들의 영감을 얻었다고 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을 높이 경찬하였다.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총비서》, 이것은 이노우에 슈타이너가 아닌 세계 진보적분류가 주체사상을 발전정부화하여 세계사화위업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리분별적이며 고결한 덕망, 비범한 명도력에 매혹되어 터진 다함없는 정성이다. 본사기자 박승영

제 주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 나라 속담에 호박소고 돼지우리에 기여는 다의 말이 있다. 스스로 제 죽을 구멍에 찾아들이는 미련한 행위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일본반동들이 노는 꼴이 꼭 그러하다.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조차 없는 일본당국이 국외로 심중히 따져보고 않고 미국의 하수노릇을 하면서 감히 우리를 감고 있는 《인권결의》조작에 앞장섰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었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이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공로성과 불배성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참다운 사회제도를 알지도 리해하지도 못하며 미국의 사타구니에 붙어 아부와 굴종으로 살아가는데 제정화된 일본이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과 계산할것이 너무나도 많다. 조선과 일본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로 되고 있다. 지난 시기 조일사이에는 여러차례의 교섭과 회담들이 진행되었다. 우리는 일본의 리성있는 정치가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조일간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하루빨리 끝장내려는 림장에서 일본과의 협상을 꾀하였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선의와 정당한 요구에 반공화국적대성적책으로 대답하여내었다. 우리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기 위해 비렬하게 책동한것도,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권위와 영상을 훼손시키기 위해 음모로 양으로 책동해나간것도 바로 심나라 일본이다. 오늘까지도 일본은 과거 우리 인민에게 끼친 최악에 한 찰사를 심하게 반성하지 않고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천추에 용서받지 못할 한을 남긴 우리 인민의 뼈대천의 원수이다.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아직도 과거 일본이 강행한 전대미문의 만행으로 하여 입은 상처가 아물지 않을때도 남아있다. 상처입은 가슴에 또 다시 칼질을 해대는 일본의 처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한치의 앞도 내다볼수 모르는 일본반동들이 미국의 《인권공세》에 적극 가담하여 어부지리를 서 항의시위가 100여일째 계속되고있는 속에 벌어진 살해사건으로 미국의 각지에 이번 사건은 인권의 동태대

언어보려는것이야말로 어리석기 그지없는것이 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일본반동들의 뿌리깊은 해외팽창야망의 산물이다.

일본은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것을 바라고있다.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감행한다면 그것이 저들의 뿌리깊은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될것이라고 타산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일본은 조선반도에 미국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군사적《협력》과 《지원》을 구실로 저들의 제침야망을 실현하고 아시아침략의 길에 나서려 하고있다. 일본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비렬한 중상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고있는것은 바로 이러한 속심에서 출발한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에 뒤러져서 위한 법적조치를 담고있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움직임들은 그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일본의 망동이 가소롭게만 보인다.

일본이 운운하는 《유사시》는 결코 조선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을것이다. 일본이 무사하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오산이다. 일본반동들이 미국에 대한 군사적《협력》과 《지원》을 구실로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려 한다던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이 오히려 우리의 주권대상을 쫓고있다. 그대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에 없지않을수도 있다. 일본은 정성을 독둑히 치러야 한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대조선침략책동에 가담하는 어중이떠중이들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것이라는 데 대하여 선언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감히 우리를 건드리는자들에게 대해서는 그 누구이든 가차없이 호된 정벌을 안건것이다.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질이며 배짱이다. 일본이 우리에게 선불질을 한답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일본의 죄 많은 과거를 말끔히 청산하고야말것이다. 제 주견도 없이 비굴하게 미국에 맹종맹종하는 것으로 하여 국제무대에서 《정치난쟁이》라는 수식어를 오명을 쓰고있는 일본이 지금처럼 분수없이 처신한다면 국제적비판에 받을것이 없다. 라 명 성

주체사상의 승리에 대한 확신

국제 김일성상사리사회, 국제 김일성상사리사회 서기장이었던 비슈와나스가 우리 나라를 또다시 방문한것은 주제71(1982)년 4월이었다. 그 나날 비슈와나스는 여러 나라의 벗들과 함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합동회의에 초대되게 되었다.

합동회의에 참가한 비슈와나스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처럼 비움고싶던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주석단에 나오시는것이였다. 그는 한말씀을 달려가 인사사를 드리고싶은 충동을 어쩔수 없었다. 며칠전에도 그의 불우의 고전적로와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받아안고 정녕 그분은 사상과 리론의 영재시라고 감탄을 금치 못하며 단 한한번이라도 만나뵈옵기를 간절히 바라던 비슈와나스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은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이라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마치시자 휴식시간이 선포되었다. 졸음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르

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있었으니 그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불우의 고전적로였다.

미국 각지에서 반인종주의시위 고조, 경찰들 시위진압에 광분

미국 각지에서 최근 반인종주의시위들이 계속 고조되고있다. 11월 28일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백인경찰의 살인만행과 사법당국의 인종차별적인 처사에 분노한 수백명의 군중이 항의시위에 떨쳐나섰다. 시위자들은 상징장물들을 들부리며 거리들을 행진하였다.

오클랜드에서는 인종차별을 형성한 시위자들이 기차길을 가로막고 철차운행을 저지시켰다. 이날 뉴욕과 시애틀, 시카고를 비롯한 다른 여러 도시들에서도 시위들이 벌어졌다. 한편 11월 29일 퍼스에서 시위대는 제퍼슨 씨드에 있는 미주리주 지사관저까지 193km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사법당국이 흑인청년을 살해한 주범을 직무에서 해임시키는데도 여론을 무마해보려고 시도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미국 각지에서 최근 반인종주의시위들이 계속 고조되고있다. 11월 28일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백인경찰의 살인만행과 사법당국의 인종차별적인 처사에 분노한 수백명의 군중이 항의시위에 떨쳐나섰다. 시위자들은 상징장물들을 들부리며 거리들을 행진하였다.

오클랜드에서는 인종차별을 형성한 시위자들이 기차길을 가로막고 철차운행을 저지시켰다. 이날 뉴욕과 시애틀, 시카고를 비롯한 다른 여러 도시들에서도 시위들이 벌어졌다. 한편 11월 29일 퍼스에서 시위대는 제퍼슨 씨드에 있는 미주리주 지사관저까지 193km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사법당국이 흑인청년을 살해한 주범을 직무에서 해임시키는데도 여론을 무마해보려고 시도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또한 《죽음의 퍼만성원들은 죽은 사람들에서 손가락을 권리로 삼고자 하였으며 그 시체들과 함께 사건을 찍었다. 미중앙정보국은 전쟁지역에 대한 외국영토들에 있는 레토본 자들을 《정비》소멸하기 위해 무인비행기를 리용하는 비밀계획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제2, 제3의 퍼구스사래의 소용돌이속에서 절대로 헤여날수 없다

미국 각지에서 최근 반인종주의시위들이 계속 고조되고있다. 11월 28일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백인경찰의 살인만행과 사법당국의 인종차별적인 처사에 분노한 수백명의 군중이 항의시위에 떨쳐나섰다. 시위자들은 상징장물들을 들부리며 거리들을 행진하였다.

오클랜드에서는 인종차별을 형성한 시위자들이 기차길을 가로막고 철차운행을 저지시켰다. 이날 뉴욕과 시애틀, 시카고를 비롯한 다른 여러 도시들에서도 시위들이 벌어졌다. 한편 11월 29일 퍼스에서 시위대는 제퍼슨 씨드에 있는 미주리주 지사관저까지 193km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사법당국이 흑인청년을 살해한 주범을 직무에서 해임시키는데도 여론을 무마해보려고 시도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또한 《죽음의 퍼만성원들은 죽은 사람들에서 손가락을 권리로 삼고자 하였으며 그 시체들과 함께 사건을 찍었다. 미중앙정보국은 전쟁지역에 대한 외국영토들에 있는 레토본 자들을 《정비》소멸하기 위해 무인비행기를 리용하는 비밀계획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미국 각지에서 최근 반인종주의시위들이 계속 고조되고있다. 11월 28일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백인경찰의 살인만행과 사법당국의 인종차별적인 처사에 분노한 수백명의 군중이 항의시위에 떨쳐나섰다. 시위자들은 상징장물들을 들부리며 거리들을 행진하였다.

대조선 《인권결의》를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자

영국 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국제사상연구소, 영국조선전선협회가 11월 2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유엔무대에서 가장 파렴치한 대조선《인권결의》가 조작된데 대해 격분을 금할수 없다. 이 《결의》는 미국과 일본, EU의 일부 나라들 등 추종세력들이 교란해낸것이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조선에는 《인권결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본주의사회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가장 우월한 인민보장제도가 세워져 있다. 접점은 사람들과 실업자들이 득실거리는 자본주의나라들이

야말로 인연유린국들이다. 침략전쟁을 끊임없이 벌이면 서 수많은 평화적인민들을 살륙한 미국야말로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이다. 일본도 지난 시기 아시아인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전범국이다. EU의 일부 나라들에서 사람들은 반공과 인종주의의 위협속에 살고있다. 대조선《인권결의》는 조국과 인민앞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고 고할, 제 부도 처자마저 버린채 도망간자들이 주어선진 거짓자료들에 기초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이 《결의》를 전전 거부, 전면배격하고 미국과 추종세력들에 대한 초강경대응 전진임을 선포한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조선중앙통신】

우물하는 4명의 미해병대원들을 찍은 편지들이 인터넷에 오르는 추세가 발생하였다. 아프리카나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는 그들의 행동을 매우 비인간적인 행위로 평하였다. 2012년 2월 미군은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교관정을 포함한 공습적인 이슬람교사자들을 소각하여 대종적인 항의행동을

《미국 인권보장실례보고서》(4)

|| 로씨야 외무성의 웹사이트에 실린 글 ||

볼리일었다. 2012년 3월 11일 미군사 로버트 베일즈는 칸다하르시의 판도라이에 있는 기차를 빠져나와 인근의 한 마을에 가서 9명의 어린이와 1명의 임신부를 포함한 16명의 평화적인 아프가니스탄인을 사살하고 그 6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국외위원회는 이 《칸다하르살륙》에 다른 미국인들도 참여하였을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2012년 4월 제82항공공군사단의 한 병사자 신문 《로스안젤레스 타임스》에 자기 동료들이 죽은 무장성원들의 시체들과 함께 찍은 18장의 사진을 넘겨주었다. 가장 극단한 경우에만 범죄자들이 형사책임이 추구된다. 실제로 2010년 여름 《시합살사》 일부 평화적인 아프가니스탄인을 마구 선택하여 죽인 5명의 미군병사가 기소되었다. 사망자들속에는 15살 난 미성년도 있었다.

《로스안젤레스 타임스》에 자기 동료들이 죽은 무장성원들의 시체들과 함께 찍은 18장의 사진을 넘겨주었다. 가장 극단한 경우에만 범죄자들이 형사책임이 추구된다. 실제로 2010년 여름 《시합살사》 일부 평화적인 아프가니스탄인을 마구 선택하여 죽인 5명의 미군병사가 기소되었다. 사망자들속에는 15살 난 미성년도 있었다.

사람잡지행위와 미중앙정보국의 비밀감옥들, 고문 장치가 감옥들에 수감할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랍치하고있다. 비밀감옥들에서 미국은 고문행위를 마구 강행하고있다. 이 범죄행위에 책임있는자들은 미사법

《미국 인권보장실례보고서》(4)

|| 로씨야 외무성의 웹사이트에 실린 글 ||

한 외국영토에 10여개의 이런 감옥들을 건설하고 법적공백 상태에서 100여명의 수감자들을 감금하였다. 강제역류에 관한 유엔조사위원회는 미중앙정보국의 비밀감옥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랍치하는것은 국제인도주의법에 대한 랍복한 위반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제3국에서 로씨야공민들을 제멋대로 체포하고 랍치하는것은 로미판에 현저한 손실을 겪고있다. 《가짜전쟁》의 의심스러운 증거자료들에 기초하여 타이에서 로씨야공민들, 아. 부르프, 리베리아에서 가. 예. 야로슬로프 체코란에서 그 명백한 실례로 된 다. 이들에게 가한 육체적 및 심리적압박은 조사와 재판과정의 의거한 증거자료들을 의심케 한다. 우리는 부드와 아르헨티오에 대한 국제판사의 판결을 부당하고 정치화되었다고 인정한다. 2009년 4월 16일 미사법정은 2002년-2005년에 기관의 법전문가들이 작성한 4건의 비망록을 대륙 사색하여 발표하였다. 이 문건들은 미국의 법과 국제법의 견지에서 미중앙정보국의 감옥들에 수감되어있는 사람들에게 가한 심문방범을 적용하는것이 합법적이라고 역설하고있다. 문건들은 14가지의 《비정통적인》 심문방범을 적용하는것을

미국 각지에서 최근 반인종주의시위들이 계속 고조되고있다. 11월 28일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백인경찰의 살인만행과 사법당국의 인종차별적인 처사에 분노한 수백명의 군중이 항의시위에 떨쳐나섰다. 시위자들은 상징장물들을 들부리며 거리들을 행진하였다.

미국 각지에서 최근 반인종주의시위들이 계속 고조되고있다. 11월 28일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백인경찰의 살인만행과 사법당국의 인종차별적인 처사에 분노한 수백명의 군중이 항의시위에 떨쳐나섰다. 시위자들은 상징장물들을 들부리며 거리들을 행진하였다.

미국 각지에서 반인종주의시위 고조, 경찰들 시위진압에 광분

미국 각지에서 최근 반인종주의시위들이 계속 고조되고있다. 11월 28일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백인경찰의 살인만행과 사법당국의 인종차별적인 처사에 분노한 수백명의 군중이 항의시위에 떨쳐나섰다. 시위자들은 상징장물들을 들부리며 거리들을 행진하였다.

오클랜드에서는 인종차별을 형성한 시위자들이 기차길을 가로막고 철차운행을 저지시켰다. 이날 뉴욕과 시애틀, 시카고를 비롯한 다른 여러 도시들에서도 시위들이 벌어졌다. 한편 11월 29일 퍼스에서 시위대는 제퍼슨 씨드에 있는 미주리주 지사관저까지 193km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사법당국이 흑인청년을 살해한 주범을 직무에서 해임시키는데도 여론을 무마해보려고 시도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또한 《죽음의 퍼만성원들은 죽은 사람들에서 손가락을 권리로 삼고자 하였으며 그 시체들과 함께 사건을 찍었다. 미중앙정보국은 전쟁지역에 대한 외국영토들에 있는 레토본 자들을 《정비》소멸하기 위해 무인비행기를 리용하는 비밀계획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미국 각지에서 최근 반인종주의시위들이 계속 고조되고있다. 11월 28일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백인경찰의 살인만행과 사법당국의 인종차별적인 처사에 분노한 수백명의 군중이 항의시위에 떨쳐나섰다. 시위자들은 상징장물들을 들부리며 거리들을 행진하였다.

《미국 인권보장실례보고서》(4)

|| 로씨야 외무성의 웹사이트에 실린 글 ||

볼리일었다. 2012년 3월 11일 미군사 로버트 베일즈는 칸다하르시의 판도라이에 있는 기차를 빠져나와 인근의 한 마을에 가서 9명의 어린이와 1명의 임신부를 포함한 16명의 평화적인 아프가니스탄인을 사살하고 그 6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국외위원회는 이 《칸다하르살륙》에 다른 미국인들도 참여하였을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2012년 4월 제82항공공군사단의 한 병사자 신문 《로스안젤레스 타임스》에 자기 동료들이 죽은 무장성원들의 시체들과 함께 찍은 18장의 사진을 넘겨주었다. 가장 극단한 경우에만 범죄자들이 형사책임이 추구된다. 실제로 2010년 여름 《시합살사》 일부 평화적인 아프가니스탄인을 마구 선택하여 죽인 5명의 미군병사가 기소되었다. 사망자들속에는 15살 난 미성년도 있었다.

사람잡지행위와 미중앙정보국의 비밀감옥들, 고문 장치가 감옥들에 수감할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랍치하고있다. 비밀감옥들에서 미국은 고문행위를 마구 강행하고있다. 이 범죄행위에 책임있는자들은 미사법

미국 각지에서 최근 반인종주의시위들이 계속 고조되고있다. 11월 28일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백인경찰의 살인만행과 사법당국의 인종차별적인 처사에 분노한 수백명의 군중이 항의시위에 떨쳐나섰다. 시위자들은 상징장물들을 들부리며 거리들을 행진하였다.